

# ‘더현대 광주’ 전통에 현대를 담다 실내 식물원·예술 문화공간 조성



‘더현대 광주’ 조감도. ‘꿀잼도시 광주’를 실현할 복합쇼핑몰 조성사업으로 10월 착공해 2028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민선 8기 광주시 ‘꿀잼 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더현대 광주’는 한국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내 최대 규모 복합쇼핑몰로 조성된다.

자연과 아름답게 공존하는 한옥을 모티브로 자연을 향해 열려 있는 설계를 통해 과거의 전통이 미래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는다.

자연의 숨결을 그대로 표현한 휴식과 즐거움을 호남의 맛과 멋을 담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현대백화점 그룹이 8일 시청 비즈니스 룸에서 개최한 ‘광주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착공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영업면적만 9만 9173㎡(3만평)에 달하는 더현대 광주는 현대백화점 가운데 최대 규모로 건축된다.

더현대 광주는 지난 2022년 11월 현대백화점 그룹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해 2월에는 광주 현지법인인 ‘더현대 광주’가 설립됐고, 올해 6월 18일 건축허가 승인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헤르조그 앤 드 뫼롱(Herzog & De Meuron)’이 더현대 광주의 내·외부 공간을 설계했다.

이들은 세계의 각 나라마다 빛을 대표하는 도시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  
지하 5~2층 주차장·1층 식품관  
지상 1~2층 럭셔리 스트리트  
3~5층 예술공간·6~7층 유리천장

중 광주에 집중했다. ‘빛고을’이라 불리며 오랜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광주와 현대의 만남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한 건축물을 구상했다는 것이다.

세대를 거쳐 간직해온 호남의 장인정신과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존중, 가장 한국적인 문화유산이 빛나는 광주의 유산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도시를 이루는 4대 요소를 ‘빌리지’(VILLAGE·마을, 6~7층), ‘볼러바드’(BOULEVARD·도심가, 1~2층), ‘바실리카’(BASILICA·공공회관, 3~5층), ‘마켓’(MARKET·시장, 지하 1층)으로 보고 건축을 디자인했다.

지하 5~2층은 주차공간으로 조성되고 지하 1층은 식품관이 들어간다.

1~2층은 19세기 유럽 도심가를 모티브로 한 ‘럭셔리 스트리트’로 꾸며지고, 지상 1층부터 천장까지 약 60m를 관통하는 대형 중앙보이드 공간을 통해 개방감을 선사한다.

2층은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는 ‘플로팅 가든’ 두 곳이 조성, 도심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3~5층까지는 수직 조정과 다양한 콘텐츠, 예술적 조형물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 구간에 설치되는 조형 에스컬레이터는 더현대 광주의 대표적 포토명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상업시설 최초로 대규모 실내 식물원을 도입해 ‘리테일 테라피(도심 속 휴식공간)’라는 새로운 개념을 실현하고, 예술·전시·공연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6~7층은 한옥 형태의 지붕과 안마당을 활용한 설계로, 약 400평 규모 유리천장을 통해 자연채광을 실내로 끌어들이 실내공간의 개방감을 극대화한다. 한국의 봄·여름·가을·겨울을 상징하는 4개의 중정을 꾸며 자연 채광으로 빛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 첫 복합쇼핑몰인 더현대 광주는 도시아용인구 3000만 시대를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특검 칼 날 ‘종횡무진’

김건희 특검, 윤상현·김영선·김상민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들을 상대로 전격적인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자택, 김상민 전 감사의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김 전 의원과 김 전 감사는 2024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각각 등장한다.

이날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이들 의혹에 관한 특검팀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반대로 해줬다는 내용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개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작년 4·10 총선에서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김 전 감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민주당 현역이었던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김 전 감사와 나란히 공천에서 탈락했다.

김 전 의원을 도왔던 명씨는 총선을 앞둔 작년 2월 18일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 선거구에 출사표를 낸 김 전 감사의 당선을 도우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김 전 의원과 김 전 감사는 특검팀 출범 이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은 별개 수사기관인 데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추가 소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을 계기로 김 여사가 연루된 다른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여사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과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연합뉴스

# 채해병 특검, ‘VIP 격노설’ 김태효 소환조사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VIP 격노설’을 규명하고자 11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특검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회의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으로,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금요일인 오는 11일 오후 3시 출석해 조사받는다. 수사 방해·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을 포함한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을 통틀어 김 전 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공개된 통화기록을 보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일 오전 11시 54분께 대통령실 명의인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경찰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 참석자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당시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은 없다”며 격노설을 부인한 바 있다.

VIP 격노설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특검팀은 전날 이 의혹의 ‘기면’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40

1985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